# “삼성생명-신한은행 60점대 박빙”

## 농구토토 W매치 32회차 중간집계

올 시즌 상대전적 신한은행 3승2패 우세
맞대결 평균득점도 각각 64.4점·63.2점

**농구토토 W매치 32회차 투표율 중간집계** (11일 오전 9시)

| 구분 | 전반 득점대 삼성생명 - 신한은행 | 투표율 | 최종 득점대 삼성생명 - 신한은행 | 투표율 |
|---|---|---|---|---|
| 1순위 | 30-30 | 14.81% | 60-60 | 18.43% |
| 2순위 | 25-25 | 12.30% | 50-60 | 13.08% |
| 3순위 | 25-30 | 10.37% | 60-50 | 12.21% |
| 합계 | 홈팀 우세 | 36.92% | 홈팀 승리 | 32.82% |
| | 5점 이내 박빙 | 34.16% | 10점 이내 박빙 | 36.68% |
| | 원정팀 우세 | 28.91% | 원정팀 승리 | 30.48% |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12일 오후 7시 용인체육관에서 열리는 2015~2016시즌 국내 여자프로농구(WKBL) 삼성생명-신한은행전을 대상으로 한 농구토토 W매치 32회차 게임의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전체 참가자의 36.68%는 양 팀의 같은 점수대 박빙승부를 점쳤다. 홈팀 삼성생명 승리 예상은 32.82%, 원정팀 신한은행 승리 예상은 30.48%로 각각 나타났다.

전반에는 삼성생명 리드 예상이 36.92%로 가장 높았고, 양 팀의 5점차 이내 접전 예상(34.16%)과 신한은행 리드 예상(28.91%)이 그 뒤를 이었다. 전반 득점대의 경우 양 팀 모두 30~34점 예상(14.81%), 최종 득점대에선 양 팀 모두 60점대 예상(18.43%)이 각각 최다를 차지했다.

플레이오프 진출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3위 삼성생명과 4위 신한은행의 맞대결이다. 삼성생명(14승14패)은 신한은행(12승16패)에 2경기차로 앞서있지만, 득점과 실점 부문에선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평균 득점에선 신한은행(62.5점)이 삼성생명(61.0점)을 근소하게 리드하고, 평균 실점에선 반대로 삼성생명(62.3점)이 신한은행(66.2점)보다 나은 모습이다.

최근 흐름 또한 유사하다. 양 팀이 직전 경기에서 모두 KEB하나은행에 패하는 등 상승세가 끊긴 상황이다. 특히 삼성생명은 최근 5경기에서 평균 56.6점밖에 올리지 못했고, 신한은행은 60.0점을 올렸지만 무려 69.4점을 내줬다.

양 팀은 올 시즌 5차례 맞대결했다. 신한은행이 3승2패로 우세하지만, 신한은행의 3승은 모두 시즌 초반 나왔다. 맞대결 평균 득점도 삼성생명(64.4점)과 신한은행(63.2점)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양 팀의 상황과 동기부여, 그리고 최근 흐름을 충분히 고려한 베팅이 필요하다. 이번 농구토토 W매치 32회차는 경기 시작 10분 전인 12일 오후 6시50분 발매 마감된다.



전지훈련 중 동료들과 연습경기를 마친 뒤 기념사진을 남겼다. 미국 팜스프링 테라라고 골프장 전경 사진과 캐디, 트레이너와 함께 하는 즐거운 식사시간(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 ‘3위 아스널 vs 1위 레스터시티’ 빅매치 승자는?

## ▮ 축구토토 승무패 7회차 중간집계

EPL 8경기와 분데스리가 6경기 대상
이청용 선발·기성용 부상복귀도 관심



이청용



기성용

**축구토토 승무패 7회차 투표율 중간집계** (11일 오전 9시 현재)

| 번호 | 경기일시 | 홈 : 원정 | 홈팀승 | 무승부 | 홈팀패 |
|---|---|---|---|---|---|
| 1 | 2.13(토) 21:45 | 선덜랜드 : 맨체스터UTD | 10.13% | 16.61% | 73.26% |
| 2 | 2.13(토) 23:30 | 볼프스부르크 : 잉골슈타트04 | 61.82% | 24.93% | 13.25% |
| 3 | 2.13(토) 23:30 | 다름슈타트98 : 바이어04레버쿠젠 | 13.65% | 18.72% | 67.63% |
| 4 | 2.13(토) 23:30 | 슈투트가르트 : 헤르타베를린 | 28.23% | 29.21% | 42.56% |
| 5 | 2.13(토) 23:30 | 베르더브레멘 : 1899호펜하임 | 64.19% | 22.79% | 13.01% |
| 6 | 2.14(일) 00:00 | 본머스 : 스토크시티 | 37.54% | 32.67% | 29.79% |
| 7 | 2.14(일) 00:00 | 크리스탈팰리스 : 왓포드 | 41.56% | 32.22% | 26.22% |
| 8 | 2.14(일) 00:00 | 에버턴 : 웨스트브롬위치 | 78.88% | 13.96% | 7.16% |
| 9 | 2.14(일) 00:00 | 노리치시티 : 웨스트햄UTD | 18.85% | 23.56% | 57.59% |
| 10 | 2.14(일) 00:00 | 스완지시티 : 사우스햄턴 | 18.39% | 28.69% | 52.91% |
| 11 | 2.14(일) 02:30 | 첼시 : 뉴캐슬UTD | 82.33% | 10.94% | 6.73% |
| 12 | 2.14(일) 02:30 | 퀸른 : 프랑크푸르트 | 60.55% | 23.45% | 16.00% |
| 13 | 2.14(일) 21:00 | 아스널 : 레스터시티 | 40.24% | 29.25% | 30.51% |
| 14 | 2.14(일) 23:30 | 함부르크 : 묀헨글라트바흐 | 16.48% | 21.24% | 62.28% |

* 2016. 2. 13(토) 21:35 발매마감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13일(한국시간)과 14일 펼쳐지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8경기와 독일 분데스리가 6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 승무패 7회차 게임의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전체 참가자의 40.24%는 EPL 아스널-레스터시티(13경기)전에서 아스널의 승리를 내다봤다. 레스터시티 승리 예상은 30.51%, 무승부 예상은 29.25%였다.

홈팀 아스널은 지난 25라운드 본머스전에서 2-0으로 이겨 4경기연속무승(3무1패)의 고리를 끊었다. 공격진의 부진으로 3위까지 떨어진 아스널이 12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선 선두 레스터시티와의 이번 맞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해 승점차를 2점으로 줄여야 한다. 더욱이 이번 경기 이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토트넘 등 만만치 않은 팀들과의 경기가 줄을 잇는 만큼 승리가 절실하다.

레스터시티는 리버풀에 이어 맨체스터시티까지 꺾으면서 우승 경쟁에서 한발 더 앞서있는 상태다. 현재 2위 토트넘, 3위 아스널과의 승점차가 5점이라 이번 아스널전에서 승리한다면 향후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양 팀의 시즌 첫 맞대결에선 아스널이 레스터시티를 5-2로 완파한 바 있다.

이밖에 최근 이청용이 선발로 나서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는 왓포드를 잡고 오랜만에 승리를 거둘 것이란 예상이 41.56%로 높게 집계된 반면, 기성용이 부상을 털고 일어나 복귀할 것이란 소식이 들리고 있는 스완지시티는 사우스햄턴전에서 승리 예상이 18.39%에 그쳤다.

분데스리가에선 5위 레버쿠젠과 11위 다름슈타트가 격돌하는 가운데, 레버쿠젠 승리 예상(67.63%)이 다름슈타트 승리 예상(13.65%)과 무승부 예상(18.72%)을 압도했다. 또 3위 헤르타 베를린은 12위 슈투트가르트를 맞아 승리할 것이란 예상이 42.56%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7회차는 13일 오후 9시35분 발매 마감된다.

# 프로토 13회차 발매…KBL·WKBL 치열한 순위경쟁이 변수

‘골라보는 스포츠의 재미, 프로토에서 즐기세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국내외 프로스포츠를 총 망라한 고정배당률게임 프로토(Proto) 13회차를 발매한다. 이번 회차에선 12일(한국시간)부터 15일까지 벌어지는 국내 남녀프로농구 34경기를 비롯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0경기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21경기, 독일 분데스리가 15경기 등 총 160경기가 토토 팬들을 찾아간다. 특히 국내 남자프로농구(KBL)의 경우 6강 플레이오프(PO) 진출팀이 모두 가려진 만큼 시즌 막판 변수에 주목해야 한다. 국내여자프로농구(WKBL)도 포스트시즌 진출을 위한 중위권의 치열한 경쟁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KBL, 막판 고춧가루 부대에 주의하라!**

KBL에선 6강 PO 진출팀이 모두 확정됐지만 아직 최종순위가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고춧가루 부대를 주의해야 한다. 먼저 4위 KGC는 이번 회차 1~3번 경기에서 LG를 상대한다. 3위 오리온에 2.5경기차로 뒤져있는 KGC는 큰 이변이 없는 한 5위 삼성과 6강 PO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 단, 5위 삼성과는 0.5게임차라 두 팀의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5전3승제인 6강 PO의 경우 먼저 안방에서 경기를 치르는 팀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4위를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KGC다. 게다가 KGC는 올 시즌 안방 성적이 가장 좋은 팀 중 하나다. 따라서 남은 경기에선 체력안배보다는 4위 사수에 올인할 가능성이 높다.

1위 KCC는 13일 6위 동부를 상대한다. 5위 삼성과의 간격이 3경기차로 벌어진 동부의 순위 변동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오히려 남은 경기에 사활을 걸어야 할 팀은 2위 모비스와 3위 오리온의 추격을 받고 있는 KCC다.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할 경우 4강 PO로 직행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기에 KCC로선 반드시 선두를 지켜야 한다.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도 3승2패로 KCC가 다소 앞서는 데다, 최근 분위기에서도 연승을 달리고 있는 KCC가 우세해 보인다. 동기부여 측면까지 따지면 KCC로 무게의 추가 기울 수 있는 대결이다.

**●WKBL, 매 경기 접전 예고…핸디캡 및 언더/오버 게임에 주의하라!**

유례없는 순위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WKBL 역시 농구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리그다. 그 중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는 3위 삼성생명과 4위 신한은행이 맞붙는 7~9번 경기다. 삼성생명에 2경기차로 뒤져있는 신한은행은 PO 진출을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다만 최근 신한은행은 부상 선수들이 속출하면서 정상적인 경기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올 시즌 초반 3차례 맞대결에선 신한은행이 모두 승리했지만, 최근 2경기에선 삼성생명이 연승을 거뒀다. 특히 1월 10일 열린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선 삼성생명이 신한은행을 77-49로 대파했다. 객관적으로는 삼성생명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양 팀 모두 절박한 형편인 만큼 접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높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이번 프로토 게임에선 플레이오프를 앞둔 국내남녀프로농구를 대상으로 한 경기가 토토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각 팀의 상황에 따라 경기력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시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꼼꼼한 전력분석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토토/프로토) 이외 모든 유사 스포츠베팅 행위는 ‘불법스포츠도박’이며,
이를 이용할 시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불법신고] 1899-1119 www.cleansports.or.kr ▪ 공식발매사이트 www.betman.co.kr

# 해외 전훈지에서의 설날…떡국 먹고 또 훈련

## 이보미의 그린다이어리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어렸을 때 많이 듣던 동요인데, 나에겐 언제부터인가 특별함이 없어졌다. 올해도 어김없이 설날을 해외에서 보내고 있다. 아니 훈련장에서 설을 맞고 있다. 이렇게 설날을 외국에서 보낸 게 언제부터인지 잘 기억도 나지 않는다. 초등학교 때 골프를 배우기 시작해서 13살 때부터 겨울이면 외국으로 전지훈련을 떠나기 시작했으니 벌써 14~15년 정도는 된 것 같다. 그만큼 설날에 대한 추억도 희미하다. 어렸을 때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어른들께 세배도 하고 용돈을 받았던 기억이 어렴풋하게 나기는 하지만 그 역시 또렷하지는 않다.

한국은 매우 춥다는 일기예보를 봤는데 훈련 중인 미국 팜스프링은 한 낮에 반팔을 입지 않고서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설날이라는 느낌이 더 들지 않는 것 같다. 그래도 이번 설에는 맛있는 떡국도 한 그릇 먹었다. 우리들을 위해 멀리 미국까지 따라오신 조범수 프로님의 사모님께서 직접 떡국을 끓여주신 덕분에 정말 맛있게 먹었다(매일 저녁 우리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에서, 그리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동료들과 다 같이 나누어 먹은 떡국이라 그런지 더 맛있었던 것 같다. 아마도 이런 기분은 나뿐 아니라 겨울을 외국에서 보내고 있는 골프선수라면 다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 어느덧 내 나이도 29살이 됐다. 아~ 점점 다가오는 30대가 슬프기만 하도다. ㅠㅠ 30대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궁금하고 은근 기대되네 ㅋㅋ

설날이었지만 내 앞에 놓여 있는 건 훈련 일정표뿐이다. 떡국 한 그릇으로 시작한 설날엔 팀 매치가 열렸다. 함께 훈련하는 동생들과 팀을 나눠 대항전을 했다. 하얀색으로 옷까지 맞춰 입고 나름 준비를 했던 덕분일까. 우리 팀이 3타 차로 이겼다. 별것 아닌 경기지만 이겼다는 건 늘 기분 좋은 일이다. 옷까지 맞춰 입고 나온 보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ㅋㅋ

시간이 참 빠르다. 어느덧 훈련도 막바지다. 열흘 정도도 남지 않은 것 같다. 조금씩 스윙도 완성되고 원하던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까지 더 열심히 해야지~~

팜스프링에서

# 송영한 “스피스와 동반라운딩 못해 아쉬웠다”

## 싱가포르오픈 우승컵 안고 금의환향
## “준우승만 6차례…징크스 떨쳐내 좋다”

“세계랭킹 1위와 붙어 차지한 우승이라 더 영광스럽다. 운이 좋았다.”

남자골프 세계랭킹 1위 조던 스피스(미국)를 상대로 프로 데뷔 첫 우승을 차지한 송영한(25·신한금융그룹)이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금의환향했다. 송영한은 1일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장에서 끝난 아시안투어 SMBC 싱가포르오픈에서 스피스의 추격을 1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특히 이 대회는 최종 4라운드가 악천후로 하루 연기되면서 긴 승부가 펼쳐졌다. 2타 차로 앞서 있던 송영한은 경기가 중단되기 전 16번홀에서 3.5m 거리의 파 퍼트를 남겨두고 있었으며, 스피스는 마지막 18번홀에서 1m 남짓한 버디 퍼트를 앞뒀다. 다음날 둘 다 이 퍼트를 성공시키면서 송영한이 1타 차 리드를 지켰고, 마지막까지 선두를 유지해 우승을 차지했다. 송영한은 귀국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기가 다음날로 연기됐던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 것 같다. 날씨가 안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경기를 했더라면) 불리했을 것이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012년 프로로 데뷔한 송영한은 우승 없이 준우승만 6차례 기록할 정도로 지독한 우승 징크스에 시달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긴장하지도 않았고 세계랭킹 1위를 상대로 한 우승 경쟁이었기에 더 편안했다. 그는 “우승이 절실했기 때문인지 집중이 잘 되고 긴장도 안 됐다. 내 경기에만 집중했고 이번 경기를 통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면서 “다만 스피스와 함께 경기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래서 스피스를 이겼다는 것이 크게 실감이 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준우승 징크스를 떨쳐낸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우승으로 세계랭킹이 110위까지 상승한 송영한은 단숨에 리우올림픽 출전권까지 노릴 수 있게 됐다. 송영한은 “아직까지는 올림픽 출전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 (출전하게 된다면) 큰 영광일 것이다. 매 경기 최선을 다하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우승으로 아시안투어 전 경기 출전권을 획득한 송영한은 17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메이뱅크 챔피언십에서 다시 한번 돌풍을 일으킬 예정이다.

주영로 기자



아시안투어 SMBC 싱가포르오픈에서 세계랭킹 1위 조던 스피스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한 송영한(오른쪽)이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어머니 유옥녀씨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